

## 의학용어와 교과서 만들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김 원 옥

### Medical Terminology and Its Use in the Textbook

Won Oak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불과 10 여년 전 만해도 각과에는 한글로 된 교과서가 없는 것이 보통이었다. 기껏해야 영어로 쓰여진 프린트물을 나누어주거나 아예 영어로 된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각 학회가 중심이 되거나 개인교수들의 노력으로 각과마다 전문분야 용어집과 적어도 한 권의 한글 교과서는 출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이러한 교과서를 전적으로 수업시간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곳은 드물지만 참고서적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한글세대가 학습의 주된 대상이 되면서 한글로 된 교과서의 활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교과서를 비롯하여 많은 의학관련 출판물이 한글로만 적혀져 나올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과서 만들기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각과의 교과서나 출판물을 두루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시대적인 변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교과서를 만든 주체 세대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노교수들이 집필한 것은 한자를 많이 사용하였고, 비교적 젊은 세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한자보다는 한글 중심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이 점은 논문을 네대별로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1960~70년대 무렵의 논문을 보면 논문의 전반에

걸쳐 한자 투성이이고 근래에 가까워지면 한자는 구경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추세는 논문의 작성 주체가 틀린 한자용어를 쓰기보다는 한글만 적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어차피 의료계도 하나의 사회 구성집단으로 사회적 시대현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잇점은 일반서적이나 잡지에서 한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글화 추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학용어의 대부분이 한자로 만들어져 있고, 때로는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한글로만 적는다고 해서 그 뜻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교과서나 전문서적을 볼 때 한자를 많이 배운 세대에게는 한자로 적고 읽으면 속뜻이 그대로 이해가 되지만 한글세대에게는 무의미한 용어로 그 어원의 참뜻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이다.

우리말로만 나타낸 문장을 보기로 들어 적어보면 “척골동맥에 천자해서는 안되고, 요골동맥을 택하여 동맥혈을 취한다.”로 표현된다. 이 문장을 다시 한자와 영어용어를 같이 적어 보면 “척골동맥(尺骨動脈, ulnar artery)에 천자(穿刺, puncture)해서는 안되고, 요골동맥(橈骨動脈, radial artery)을 택(擇)하여 동맥혈(動脈血)을 취(取)한다.”이다. 마치 이조시대나 구

한말 신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저절로 들게 될 것이다. 물론 이미 전문인이 된 사람은 한글로만 적혀 있어도 자기 전문분야 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 용어이거나 배우는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그지없다. 현재 많은 교과서가 이런 형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조금 낫다면 “택(擇)하여”를 “골라서”, “취(取)한다.”를 “얻는다.”로 한글화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용어로 된 문장이 한글로만 적으면 얼른 알 수 없으므로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뜻을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어로 된 문장은 한눈에 와닿지 않는다. 효율적인 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한 문장의 침뜻도 꼭 짚이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일부 과에서 의학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있다. 예를 들면 “척골동맥”은 “자동맥”, “요골동맥”은 “노동맥”으로 하고 있다. “동맥”은 이미 관습적으로 익어 있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기능, 모양, 뜻에 따라 새로운 용어로 만들어 “자동맥”的 “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길이를 쟁 때 사용하는 “자”를 나타내고, “노동맥”的 “노”는 “노를 짓는다”의 “노”를 의미하고 있다. 모든 용어를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는 찬반이 무성하다. 반대하는 입장은 대부분이 정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운 용어에 대한 반발감이 많다. 또 합성어를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하며, 말이 길어진다고 아우성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용어가 너무 쉽게 되어 우습게 보인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말하자면 용어가 무게가 없다는 것이다. 이조시대에 한글은 주로 여자들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사고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또 어떤 이는 그러면 “비행기”를 “날틀”로 하자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동양문화권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 한자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주장에 납득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나 모든 용어를 이대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글로만 용어를 적어본 사람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무엇인가 고쳐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모든 정보가 전산화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많은 문장이 한글로만 표현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사람에 따라 한글 쪽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한자용어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을 강조하기도 한다.

지금은 시대적인 과도기이다. 의학용어도 이 점에서 시대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 교과서를 만들고 용어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교과서를 만들다 보면 용어의 통일과 사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한글용어를 받아들일 것인가, 한자를 같이 적어 주어야 할 것인가, 일본식 한자 의학용어에 손을 댈 것인가, 영어용어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책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용어 자체도 과도기적인 현상의 한 가운데 있으므로 어느 용어가 살아 남을 것인지는 사용자들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의학용어를 제정하는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모든 것은 용어의 사용자만이 그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

말과 글은 그 시대 사회 구성원의 사상적 문화적인 표현으로 생명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언어도 생명체와 같이 생존의 법칙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한다. 더구나 전문분야라는 사회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기술적이고 지적인 깊이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의학용어는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선진외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분야의 하나가 될 것이다. 어찌면 서양의학 자체가 발원지가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 볼 것이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의학용어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힘을 쏟고 정성을 들였는가하는 것이다. 대책없이 반대하거나 한글화의 총론에는 찬성이나 각론은 반대하는 식의 논리는 접어 두고 적절한 우리말 의학용어 만들기와 사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점은 교과서 만들기에 참여해 본 사람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글로 의학용어를 사용해 본 사람은 자기 문장을 적어놓고 다시 읽어보면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 무엇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분야 교

과서에서 찾아보기를 보면 뜻 모를 한자용어가 한글로 나열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말 의학용어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정보화 시대에 바른 정보의 창출과 뜻의 바른 전달을 위해 쉽고 좋은 용어를 만드는 것은 눈앞에 닥쳐온 일이며 이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된다.